

##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4:1-2)

저는 와일더 스미스 박사와 감각기능상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정신(mind)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해석하느라고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감각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뇌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1초에 18개의 영상을 뇌에 보내면 뇌는 진동과 색깔과 형상을 해석하며 이와 동시에 귀는 소리의 진동을 뇌에 보내고 뇌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뇌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정보의 공급과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주비행사들이 훈련 중 종종 이른바 ‘감각기능상실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을 물이 차 있는 캄캄한 방에 떠 있게 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체온 정도 되는 따뜻한 물 속에서는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감각기능상실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에 의해 입력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우주비행사들은 환상과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섯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 여섯번째 감각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뇌에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맛, 즉 미각이 약해지는 ‘감각기능상실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뇌는 미각이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뇌의 오감기능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여섯번째 감각이 열려 그것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식한 지 5일이 지나면 배고픔을 잊게 되는데, 그 때부터는 생명에 큰 위험이 닥치기까지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35일째에서 40일째 되는 사이에 배고픔을 느끼는 때가 바로 실제로 아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금식하던 40일 동안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으나 그 후에는 시장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 때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4:3)

여기에서 만일(if)은 ‘...이므로’(since)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일(막 3:11-12)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자주 사용하는 사단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자신의 배고픔, 즉 네 자신의 욕심과 네 육신의 열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4:4)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싸워 이길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첫번째 서신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였고 또다시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KJV)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4:5-6)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왜곡하여 유혹해 올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의 “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막 16:17-18)와 같은 구절입니다.

일전에 켄터키 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염을 주며 그것을 먹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이 그 청산염을 먹고 죽어 그 목회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18의 말씀에 근거하여 방울뱀을 잡다가 물려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뛰어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성경에 천사가 보호해 주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마귀는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써 사단의 두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4:8-10)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각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드디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4:12-13)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행하신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본문의 ‘해변’은 당시 바다라 불렸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4:14-17)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메시아가 곧 나타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곧 임할 수도 있었으나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4:18-20)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4:21-22)

마가복음 10:29-30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4:23-25)